

2023년 8월 23일

디스플레이 / 가전 Analyst 김동원
02-6114-2913 jeff.kim@kbfq.com
연구원 박주영
02-6114-2920 juyoung.park@kbfq.com
연구원 유우형
02-6114-2940 Woohyung.yoo@kbfq.com
연구원 이경아
02-6114-2111 kyunga.lee@kbfq.com

IT

아이폰, 기대 낮지만 수요 강할 것



더 많은 리포트 보기

9월 12일 아이폰15 공개 후 전 모델 출시

— 8월 22일 IT 매체 (나인투파이버맥)에 따르면 애플 (Apple)은 아이폰15 프로맥스 출시를 3~4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아이폰15 프로맥스 (Pro Max)에 탑재되는 소니 (SONY)의 이미지센서 (CIS) 공급차질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소니 (SONY)는 아이폰15 이미지센서 생산능력 (capa)을 대폭 확대하며 수율 부진을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아이폰15 프로맥스 출시 지연 가능성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따라서 애플은 기존 계획대로 9월 12일 아이폰15 4개 모델 공개한 후 출시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 아이폰15 생산량 8,700만대 기존 계획 유지

— 애플은 올 하반기 아이폰15 생산량을 부품 공급차질 우려에도 기존 계획인 8,700만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 4분기에 아이폰15 전체 생산량의 70% (3분기 2,600만대, 4분기 6,100만대)가 집중되고, 4분기 프로 시리즈 생산량이 3분기 대비 약 +3배 증가 (3Q23E 1,500만대 → 4Q23E 4,200만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폰15 부품의 최종 품질 승인 완료 예상

— 아이폰15 핵심 부품 (카메라 이미지센서, 디스플레이, 티타늄 프레임)의 생산차질 이슈는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애플이 조만간 위 3가지 부품에 대한 최종 품질 승인 완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폰15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5 4개 모델은 9월부터 본격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 모두 선 반영, 더 잃을 것 없는 주가

— 아이폰15 부품 업체는 생산 차질과 수요 우려로 최근 한 달간 평균 -8% 하락했다. 그러나 애플은 공급망 차질에도 불구하고 아이폰15 기존 출하계획 (8,700만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2억대에 달하는 아이폰 대기 수요가 상존하는 가운데 올 하반기 아이폰15와 경쟁할 뚜렷한 모델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이폰15 부품 업체는 판가상승과 물량증가 효과로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된다. 특히 역사적 하단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는 아이폰 부품 업체의 현 주가는 우려를 모두 선 반영하고 있어 더 잃을 것이 없는 주가 수준으로 판단된다. 최선호주로 삼성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를 제시한다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삼성전자]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LG이노텍]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